

3

# 이데올로기 시대와 학문의 자유

이 광 주

인제대 사학과 교수



**일** 마동안 연이어서 매스컴에 보도되고 사회에 적지않은 화제를 불러 일으킨 진주 경상대 교양과목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필자 2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신청이 재판부에 의해 기각되더니 검찰에 의해 공저자인 몇몇 교수가 다시 조사를 받게 되고 그리고 출판사 대표 및 그 교재를 판매한 서점 대표에 대해서까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리고 교양교재 물의의 책임을 지고 동 대학의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였다.

그간 검찰의 논고는 동서의 '이적성'에 관해 지적하고 있으며 그에 맞서 공동 집필자

## 지성사상의 대학과 교수상

1. 중세의 방랑교사와 그 후예들
2. 교양과 교양인의 세기속의 대학과 아카데미(상, 하)
3. 이데올로기 시대와 학문의 자유
4. 베를린 대학과 아카데미 쿠스
5. 다원적 대학과 교수의 천의 얼굴

들은 처음부터 '학문의 자유'를 내걸고 무죄를 주장하여 왔다.

『한국사회의 이해』를 둘러싼 문제는 필자로 하여금 학문의 자유와 이데올로기 문제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교단에서의 '가르치는 자유'에 관한 문제를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한다.

## 1. 학문의 자유와 교사의 '염직성'

먼저 '학문의 자유'에 관해 생각해 보자. '학문의 자유'라는 생각은, 유럽 중세 대학의 논리적이며 논쟁적인 학습의 내용(문법·변론·논리 등 三科) 및 그 방법과 관련되어 일어났다. 당시에는 강의도 대체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렇듯 학문과 교수 방법의

논리적·논쟁적 성격은 당연히 생각하는 자유, 논의하는 자유를 전제해야 하였으니, 17세기에 이르러 독일의 할레 대학은 '철학하는 자유'를 지도 이념으로 창건되어 논리적 증명이 모든 학문 인식의 근거로서 주장되었다. 이 '철학하는 자유'의 배경에는 당시의 각 종파에 의한 고질적인 종파주의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깔려 있었다.

'철학하는 자유'에 이어 괴팅겐 대학은 '가르치는 자유'를 주장하였으니 이제 학문과 가르침은 단순히 기존의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로서 자유로이 사색하고 연구하며 그 결과를 강의하게 되었다. '가르치는 자유'의 사상은 자주적인 학습 방법인 세미나 형태의 학습 지도에서 잘 반영되었으니, 지난날 정해진 교과서에 의해 주석하는 식의 강의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사상의 자유', '가르치는 자유'의 정착에는 뒤에서 언급 하듯이 서적 문화의 발달에 힘입은 바 크다.

그간 유럽 대학에서 신학부는 이단에 대한 고발을 전통적으로 행해 왔거니와, 교수의 강의나 저작에 대한 검열도 그 권한으로 행사하여 왔

다. 그러나 괴팅겐 대학의 '가르치는 자유'는 신학부의 그러한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폐지를 관철하였다. 당시 철학부의 한 교수가 정부로부터 무신론자라는 낙인이 찍혀 강의 금지를 통고받았을 때, 신학부 스스로가 그에 강경하게 맞서서 '가르치는 자유'의 기틀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은 학문의 자유의 역사에 있어 획기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학문의 자유'(Akademische Freiheit)의 이념이 명확한 개념으로, 학문적 공동체인 대학의 지도 이념으로서 뿌리를 내리는 것은 특히 베를린 대학의 창립(1810)을 기해서였다.

독일 이상주의 철학과 인문주의의 학문관과 문화관 그리고 국가관을 반영한 '학문의 자유'의 이념은 학문 연구와 그에 종사하는 교수와 학생의 자율성, 특히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각별히 강조하였다.

근대 대학의,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내세우는 '학문의 자유' 내지 '대학의 자유'의 이념은 대체로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베를린 대학의 모델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학문 연구와 그에 종사하는 학구자가 자유로워야 함은 표현의 자유가 예술가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과 꼭같이 당연하다. 국가 안전이니 사회질서(윤리)니 하는 명분 아래 국가권력이나 종파가 그에 간섭하거나 더욱이 단죄함은 그것은 바로 국가나 종파의 월권이라고 할 것이다.

막스 베버는 '학문의 자유'의 이념을 받들어 '무전제의 학문', 즉 학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제없는' 자유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그의 무전제에는 하나의 전제가 불가결한 것으로 전제되었다. 그것은 곧 학문하는 자의 '금욕'이다.

베버에 의하면 교사는 지도자가 아니다. 교사는 자기의 주관적 평가나 세계관을 교단에서 학생에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 교사는 "교단 위에서 듣는 사람을 향해 무엇인가 어떤 입장을 - 명백하건 묵시적이건 -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교사는 어떠한 이념이나 주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학문』과 그 밖의 대학론 내지 학문관에 관한 그의 여러 저술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은 베버의 주장은

‘가치의 자유’(Wert Freiheit)라는 개념으로 표현되었거니와, 베버가 바라는 대로 과연 학문하는 자는 이념 내지 그의 주관에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주관과 관계하지 않는 객관성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아무리 역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필경 역사가의 주관이 개재되기 마련이듯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베버 자신도 단지 사실에만 관련되는 ‘知的 객관성’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버가 ‘지적 염직’과 관련하여 것처럼 ‘객관성’, ‘가치의 자유’ 혹은 ‘무전제의 학문’을 교사에게 되풀이하여 요청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직업으로서의 학문』이 발표되었을 당시(1919)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의 지식 사회에서는 소비니즘적 민족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아류가 바로 호로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현대 산업사회가 낳은 대중민주주의의 해악으로서 그 테마고그적인 특성을 심각하게 두려워한 바 있는 베버는, 마르크스주의의 유행이 필경 대학안으로 이데올로기의 선동자를 불러 들여오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씻어 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베버는 학생 시절 역사가 트라이취케의 반유대주의적인 강의에 학생들이 “열광적인 환성”을 나타내는 한심스러운 체험을 한 바 있었다. “예언자나 선동자는 대학의 교단에 서서는 안 된다.” 베버의 이 정당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적 발상은 점차 대학을 침범하고 있었다.

러시아 혁명은 세계 여러 지역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지식인들과 민중의 등장을 초래하여 역사상 유례없는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태동되었다. 마르크스주의는 그 방법론과 실천적 인식의 논리로 인하여 학문 연구와知的 지평을 넓히는 데 획기적인 기능을 다하였다. 그러나 한편 마르크스주의와 더불어 知的 이데올로기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연히 나타났음을 우리들은 부인할 수 없다.

대학이란 모든 사상이, 모든 사고 방식이 자유로이 논의되고 검증되는 ‘諸神들의 투기장’(베버)이다. 거기에서는 학예의 어느 ‘神’도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또 어느 ‘神’도 ‘先取權’을 지니지 못한다.

## 2. 이데올로기와 대학

부르크하르트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세계의 역사를 돌로, 그것이 간행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놓았다고 하였거니와 『사회계약론』에서 주창된 ‘인민주권’의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 갈등의 시대를 출현시켰으니 그것은 민중 이데올로기가 몰고 온 파워 집단의 다원화와 그 긴장 관계에 대응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운운하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특히 문자언어에 조석으로 대하는 지식인은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데올로기의 광장으로 들어서게 마련이다. 근대 소설은 사람을 연애에 눈뜨게 하였고 하거니와 우리들을 이데올로기의 광장으로 끌어들이는데 크게 기능하는 것은 우리들을 둘러싼 현실 상황에 앞서서 문자 언어와 그것을 담은 서적이다.

플라톤은 “생명을 지니고 영혼을 지닌 이야기 - 말”을 예찬하였거니와 동서를 가리지 않고 전근대적 사회에서는 ‘이야기’가 지극히 소중한 여겨졌다. 이야기는 개인과 개

인, 개인과 집단, 마을과 마을을 맺어주는 중개자요 정보의 원천이었다.

말과 이야기의 전통사회에도 서적은 존재하였다. 그러나 당시 문자 언어는 가족 사이에서, 학당에서, 특히 수도원과 성당에서 되풀이 誦讀되었다. 서적이 희귀하였던 시대에 있어 사람들은 전혀 같은 문장을 귀로 듣고 기억하고 인지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말과 이야기의 모델이 되고 典據가 되고 규범(코드)이 되는 서적은 신의 말과 나라의 규범을 담은, 주술적인 것으로써 그만큼 그것을 해독하는 자는 카리스마적 권위를 지녀 畏怖의 대상이 되었다.

‘말’과 ‘이야기’는 單義的이며 그러므로 그것이 지배한 시대는 단일 이데올로기의 시대요, 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고 조작하는 자는 유교적 전통 사회나 오리엔트 세계 및 유럽 중세에서 드러나듯이 말의 전거로서의 문자 언어를 해독하고 서적을 관리하는 소수 학식자 집단이었다.

말과 이야기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 갔다. 우선 9세기에서 11세기에 걸쳐 종래 음독에 의해 寫本을 작성한 수

도사들의 습관이 점차 사라져 갔다. 그에 이어 13세기에 이르러, 대학 사회에 默讀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중세 대학은 도시를 요람으로서 탄생되었거니와 문서에 의한 계약으로써 말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도시 부르주아지의 요구가 대학의 성립을 크게 뒷받침하였던 것이다. 묵독의 습관은 14세기 중엽에 이르러 귀족층에도 확산되었다. 그러나 서적과 인간과의 새로운 관계가 트인 계기가 된 것은 15세기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 발명이었다.

유럽 역사에서 14, 15세기는 발견과 발명의 시대이다. 갖가지 발명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것은 구텐베르크(1394~1468)에 의한 활판 인쇄술의 출현이었으니 그것은 지적 세계의 끝없는 가능성의 길을 텃다.

인쇄술의 발명은 때마침 초기 자본주의의 파도를 타고 유럽 여러 지역에 수많은 인쇄소를 출현시켰으니 그 수는 15세기 말에 이르러 전 유럽을 통해 3백여 곳, 1천을 헤아렸다. 그리하여 서적은 소수 학식자나 귀족의 독점으로부터 개방되어 점차 폭넓은 독서계층과 새로운 문필가群을 배출하였다.

이미 대학은 중세말에 이르러 수도원에 대신하여 서적출판의 중심이 된 바 있거니와, 각 대학 주변에 직업적인 寫字生들의 길드가 생겨난 데 이어 시중의 출판업자들도 대학에서 위탁한 원고의 사본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대여하였다. 대학 감독 아래 있는 책방을 ‘Stationer’라고 불렀다.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서적상’을 의미하는 영-불-독어 ‘bookseller’, ‘Libraire’, ‘Buchhändler’가 생겨났다.

그러나 한편 민중들이 가까이하는 책이란 아직도 중세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성서와 敎義문답서에 한정되었으며 그러한 상태는 18세기 계몽주의시대까지 계속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구텐베르크의 발명이 가져온 성서이야기의 세계와 다른, 고대 그리스-로마의 고전과 논의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점진적 보급이 일부 학식층이나 귀족 및 상층 시민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나, 스콜라주의적인 지식층과는 다른 ‘모데르네’, 즉 근대적 이데올로기에 경사된 지식층 형성의 길을 터 놓았다.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에 앞선 인쇄술의 발명이 없었던들 성공하지 못하였으리라고 하거니와, 루터

의 모든 언설과 호소가 재빨리 팜플렛으로써 독일 방방곡곡에 메아리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개혁 의지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되어 귀족, 시민계층 및 민중을 사로잡았으니 문자 언어에 의한 이데올로기 시대가 개막되었다. 루터는 가히 1789년 혁명을 지적으로 준비한 18세기 계몽사상가들이나 볼셰비키 혁명을 쟁취한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에 앞선 이데올로그라고 할 것이다.

종교개혁은 유럽의 대학을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두 진영으로 갈라놓았으며 그 대립은 점차 이데올로기적인 양상을 드러내었다.

비클리프(옥스퍼드 대학), 후쓰(프라그 대학)와 마찬가지로 루터도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 출신이었다. 그는 신앙의 개혁과 더불어 여러 저술에서 대학의 새 위상을 주장하였다. 루터는 먼저 대학의 전통을 비난하고 교회법에 대신한 시민법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의 최대 적은 아리스토텔레스였으며 신학부에서의 철학 연구를 단죄하였다. “이성은 신의 가장 두려운 적인 까닭에.” 이러한 루터에 대해 에라스무스를 앞세운 휴머니스트들이 카톨릭의 입장

을 옹호하였다.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포교를 위해 많은 대학을 세웠으며 어느 大學史家は 독일 여러 領邦에서는 “앞을 닦아 요새를 축조하듯이 대학을 세웠다”라고 기술한 바 있다. 특히 비텐베르크 대학은 루터의 원리를 이론의 여지 없이 수용한 대학으로서, 루터는 동 대학을 ‘신이 그 말씀을 나타낸’ 최초의 학원이라고 선언하였다. 동 대학 루터의 강의실에는 4백 명 학생(당시 비텐베르크 시의 인구는 3천 미만이었다)이 밀려들어 그의 웅변에 열광하였다. ‘신앙에 의한 義’와 ‘성서에 의해서만’이라는 루터 개혁의 원칙은 그 자체가 비학문적으로 기을 경향이 강하였거니와 종교개혁 이후 세워진 많은 대학(그 중에는 처음에 신학부만으로 문을 연 대학이 적지 않았다)이 종파적 학풍을 면치 못하였다. 이제 대학 사상 일찍이 없었던 종파적 이데올로기 시대가 대학을 무대로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1537년 대학에는 종무국이 설치되고 그것은 도그마의 문제, 성직자 인사 및 그 사생활, 교회 재산 관리 등의 최고법정으로서 기능하는 한편, 제 학부에 대한 검열, 교수와

학생에 대한 신앙 고백의 강요도 도맡았다.

종교개혁 주역의 한 사람인 후텐은 당시

“학문은 일어나고 예술은 꽃핀다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냐”

라고 노래하였지만 루터의 추종자인 이 기사는 사실은 학문이나 철학적 논의 및 고전어를 멸시하였다.

루터의 개혁과 더불어 대학 사회에 나타난 종파 이데올로기는 일찍이 없었던 정신의 ‘不寬容’의 시대를 현출하여 독일의 많은 영방에서는 타국의 대학, 특히 교파가 다른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엄격하게 규제되었다. 이데올로기는 그 속성으로 인하여 반이성적이며, 특히 루터 개혁의 종교적 정념은 혁명적, 민족주의적인 당시 독일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더욱 과격한 이데올로기로 발전하였다.

대학의 이데올로기화는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그리고 일련의 종교전쟁으로 인하여 더욱 격렬해졌다. 1564년 교황 칙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신앙 고백을 행하지 않고는 대학 학위는 수여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과 신앙

의 문제에 있어 카톨릭계 대학보다도 프로테스탄트계의 대학이 더 엄격하였다고는 하나, 종파주의는 영국의 국교회 및 프랑스를 중심으로 팽창된 제스잇에도 공통적이었다. 먼저 국교회에 관해 생각해 보자.

14세기 이래 영국에서는 유력한 주교나 대주교가 앞을 다투어 옥스-브리지에 칼리지를 만들어 옥스퍼드의 학풍은 대체로 성직자 양성의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옥스-브리지는 처음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하였다. 그러자 캔터베리 대주교는 종교회의를 소집, 그 이단성을 결의하였다. 이 회의에는 옥스-브리지의 총장과 교수도 참석하였으며 그 결의에 따라 루터의 저작은 옥스-브리지에서도 몰수되고 소각되었다. 그러나 두 대학의 루터주의자들은 굽히지 않고, 특히 캠브리지에서는 루터 연구가 활발히 행하여졌다.

루터 지지자들에 대한 대학의 심문은 일부 학생들의 저항에 의해 방해받았으나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은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 영국 대학의 종파성은 헨리 8세의 首長令에 의해 이루어진 영국 국교회(Anglican church)의

성립과 함께 종파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드러내었다.

국교회의 성립은 옥스-브리지를 로마 및 캔터베리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였으나, 그에 대신하여 교회를 뒤에 업은 국가 권력의 대학 지배가 새로이 개시되었다. 헨리는 국교회의 부대감독을 캠브리지의 총장으로 임명, 국왕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충성 선서를 강요하였으며 그의 후계자인 엘리자베트 여왕은 학위 취득에 왕과 국교에 대한 충성 선서를 의무화하였다.

국가-국교에의 대학 종속화가 완성 단계에 이르자 1566년 여왕은 옥스퍼드를 방문하였다. 이때 대학은 여왕에게 그리스어·히브리어·영어로 된 찬사를 바쳤다. 이후 3백년 동안 옥스퍼드는 전적으로 왕국과 국교의 대학이 되었다.

종파 이데올로기의 격심한 대립에 크게 작용한 것은 제스잇(Jesuit)의 존재였다. 1540년에 교황으로부터 인가 받은 제스잇회는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옹호하고 보급하기 위한 주요한 방편으로서 독자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였다. “스스로의 영혼과 이웃의 영혼을 구제하여 영혼 본래의 최종 목적에 이르는 것이 사

회의 목적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모범적인 품행 이외에도 교리와 교수술이 필요하며… 이사회가 교수 단체를 그리고 대학을 더욱 더 포용함은 이 목적을 위해서이다.”

제스잇회는 16세기 중엽 이래 독자적인 교수단을 만들어 카톨릭 여러 나라 대학의 신학부와 철학부(학예학부)를 그의 관리하에 들으로써 반종교개혁파의 최강의 이론적 세력으로서 종교개혁과 인문주의에 대해 강력히 반격하였다. 그들은 독일에서도 위르츠부르크, 쾰른의 대학을 완전히 장악하고 비인, 하이델베르크 및 그 밖의 몇몇 대학 신학부와 철학부의 교수직을 거의 자파로 메웠다. 그리하여 제스잇회의 영향은 18세기 후반에까지 미쳤다.

철저하게 교리 중심인 제스잇회의 대학 정책은 학문 및 자치적이었던 교수와 학생 중심의 대학 문화를 3~4세기 뒷걸음치게 하였으니 12세기 대학 성립 이전의 성당 중심의 교육의 종교 예속화가 부활된 것이다. 그 결과 당시의 많은 뛰어난 프랑스의 인문주의자들이 프로테스탄트에 개종하게 되었으며 그들 중에는 유명한 콜레주 드 프랑스의 대부분의 교수들도 포함되

고 있었다.

종파에 의해 세워진 대학이 반드시 종파주의 이데올로기의 아성으로서 반학문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칼빈주의도 神政국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대학을 세웠다. 그런데 칼빈 자신이 종교 교육과 자유학예에 관한 교육을 꼭같이 중요시한 바 있거니와 칼빈주의는 대학의 목적을 “신에 대한 경건한 마음”과 더불어 “학문에 적합한 자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순한 종파주의로부터 탈피한 칼빈주의는 유럽 여러 지역에 많은 대학을 그의 교리를 내걸고 설립하였으나, 주넵, 하이델베르크, 라이덴의 대학을 비롯하여 그것들은 16세기 초 유럽 대학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명성을 얻었다.

신대륙으로 이주한 영국의 퓨리탄도 많은 지역에 종파를 위한 컬리지를 세웠다. 그러나 그들 컬리지에서는 칼빈파를 본받아 종교 교육과 함께 고전 중심의 일반 교양을 균형 있게 가르쳐 하버드나 예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문 연구의 전당으로서의 대학의 본질을 훌륭히 발전시켰다.

대학의 계속되는 종파주의에도 불구하고 17세기에 이르러 대학 밖의 문자 언어의

출판 문화는 ‘논의하는 公衆’(하버마스)을 낳았다. 그리고 이 공중은 사물을 무엇보다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언어로 읽는 경향을 지녔다.

1798년의 봄, 베를린 왕궁에는 프로이센의 귀족들이 새로 등극한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에 대해 옛 관행대로 충성 선서를 하기 위해 몰려 들었다. 그때 화미한 예복을 단정히 차려 입은 그 일단 속에 볼품없는 시민의 상의를 걸친 한 사나이가 들어 왔다. 그는 혁명 프랑스 공화국의 사절인 세이에스 신부였다. 그 허술한 차림의 사나이를 귀족들은, 예전 같으면 멸시의 눈을 드러내어 무시하였을 데지만, 모두들 두려운 눈초리로 보곤 외면하였다. 그가 바로 혁명의 주요한 강령의 기초자임을, 그리고 그들의 오랜 특권 신분에 종지부를 찍은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선포자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역사가 랑케는 1789년 혁명 뒤에 쓴 그의 주요 저서에서, 시대의 두 가지 흐름으로서 전통적인 왕권 사상과 새로운 인민주권 사상을 언급하면서, 그 대립은 필경 왕권 사상의 승리로 매듭지어지리라 고 말한 바 있다. 이 보수적인 역사가는 당대의 저명한

지식인 중에서도 괴테와 더불어 일관하여 프랑스 혁명에 반대되는 입장에 섰다.

사실은 혁명에 훨씬 앞서서 유럽은 이미 이데올로기적으로 혁명을 지향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계약론』이 나온 1762년 이후 자기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준거하여 체제와 맞서는 새로운 형태의 근대적 지식 계층이 출현하였다. “문필가는 여론의 지도자가 되고 일반적으로… 직업 정치인이 하는 역할을 하였다.”(토크빌) 知性史上 유례 없는 혁명 이데올로기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이제 프랑스 혁명과 대학에 관해 살펴 보자. 루터 개혁 때와는 달리 파리 대학은 구태의연하게 스콜라주의적 전통에 빠져 있어 계몽사상이나 혁명 이데올로기를 외면하였다.

새로운 공화국은 국민교육에 관한 여러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것은 고등교육과는 무관하였으며 혁명을 주도한 파위 집단은 대학에는 무관심하였다.

고등교육에 관해 큰 관심을 갖고 구체적이며 훌륭한 계획을 제출한 것은 유독 콩도르세 정도였다. 그는 과학을 중요시하고 교육을 리세(lycée

es)를 통해 행하기를 재의하였다. 그의 제의는 “지나치게 학문적이다”라고 하여 국민공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

‘민중의 德’의 정념에 사로잡힌 대혁명의 공화주의자들은 고등교육이나 엘리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그리하여 로베스피에르에 의해 뒷받침되어 채택된 상-파르조(Le P de Saint-Fargeau)의 제안에 따라 전제군주정에 의해 태어난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국민공회의 규탄의 대상이 되고 그 회원들 또한 궁지에 몰렸다.

공화국의 지도자들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였으며 당시 대학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국민공회는 공화국 전역에 걸쳐 모든 킬리지 및 신학부·의학부·교양학부 및 법학부를 폐지한다라고 포고하였다. 한 의원은 “귀족주의와 더불어 야만은 추방되어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대학과 더불어 지방 아카데미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토크빌이 말하였듯이 혁명 이데올로기는 학문과 대학의 역사에도 무서운 단절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 3. 이데올로기시대의 ‘讀解’

이데올로기 시대에 있어 서적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독해’된다. 그 좋은 예를 출판문사가인 장-마리 구르모는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몰리에르의 『타르튀프』가 파리에서 상연되었을 때 물의가 자자하였다. 그런데 그 때의 비난은 미학적 내지 도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 같은 작품이 1770년대 마드리드에서 상연되었을 때에는 정치적인 데모를 일으키게 하고 상연 금지의 화를 입었다. 절대 왕정에 대한 반감이 당시 공통 정서로서 깔려 있었던 것이다.

구르모는 또 한 가지 예로서 그 자신의 교단 체험을 말하여 준다. 1967년 그가 소르본느의 조교로 있을 때 플로베르의 『감정교육』을 텍스트로 사용하였다. 그 때 그의 학생들은 그 작품을 한 청년과 성숙한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로서 읽었다. 그런데 2년 뒤의 학생들은 그 작품의 주인공을, 혁명을 외면하고 폰테느브로의 숲을 여인과 함께 산책하는 반동적인 부르주아

로 간주하였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도의시하고 작품을 정치적으로 읽었던 것이다. 2년 뒤의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하여 나타난 것이었을까. 그 해답은 분명하다. 그간 68년에 파리를 휩쓴 이른바 ‘스튜던트 파워’운동이 개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68년의 혁명적인 대소란(그것은 가히 혁명적이었다)에 참가하건 안 하건,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학생들이 예외없이 똑같이 『감정교육』을 정치적으로 ‘독해’하였다는 사실이다.

“文體는 인간이다”라고 하지만 서적과 서적에 대한 ‘독해’ 행태는 그 이상으로 사회성을 지닌다. ‘쓴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이 마음 속의 생각을 문자로 표현한다거나 혹은 ‘진리’를 언어로 투사하는 것이 아니다. ‘쓴다’는 행위가 ‘말’과 다른 것은, 쓰는 사람에게 세계는 ‘텍스트’로서 간주된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쓰는 사람에게 세계는 마치 역사가에게 역사가 언제나 새로이 쓰여져야 하듯이, 객관적 실재가 아니라 우리들에 의해,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 의해 새로이 인식되고 쓰여질, 끊임없이 수정되고



개정되어야 할 현실이다. 쓰는 행위의 이러한 의미는 서적 '독해' 행위에도 그대로 주어진다. 우리들은 미지의 상태에서 서적을 선택하거나 읽지 않는다. '독해'는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과생되며 그럼으로써 그 자체 사회적 의미를 재생산한다. 진정한 독자는 서적과 함께 세계도 또한 텍스트로 읽거니와 그럼으로써 그 앞에 현실은 해체되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플라톤과는 달리 데리다는 '쓰는 것의, 기쁨에 찬 방황'을 말한 바 있거니와 그에게 '쓴다'함은 그 본질에 있어 '텍스트를 짜내는 힘'을 의미하였다. 데리다와 더불어 발트, 후코 및 라칸은 "나는 쓴다. 그러므로 내가 있다"(Scribe ergo sum)라는 원리에서 인간의 본원적 의미를 찾았거니와 그들에 의한 現出의 謀計와 전술에 앞장선 창조적인 저술가들 - 아베랄, 루터, 루소, 마르크스, 프로이드 등과 그리고 그들을 따라 혹은 그들을 쓰도록 만든, 그럼으로써 스스로 세계를 '텍스트'로서 간주하는 술책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 즉 독자층을 우리들은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 4.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자유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이 땅의 대학의 주요한 과제 의 하나가 여전히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문제임을 새삼 일깨워 준다.

다른 사상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도 '제신들의 투기장'에 자리를 차지할 권리를 지니며 『자본론』이나 『공산당 선언』도 대학에서 연구되고 강의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바꾸어 말하여 마르크스주의자도 그가 '마르크스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학과 강단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산당 선언』이, 원래 그것이 독일 공산당의 강령으로서 쓰여진 것이라 할지라도 강령으로서, 다시 말하여 행동의 지침서로서 대학에서 연구되고 강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지성의 본질이, 체제와의 애매한 기계적 의존 관계를 극복하는, 체제 비판적인 그리고 때로는 '해방적'인 실천 이성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교수를 포함하여 지식인은, 그가 진정 지성적인

간이라면, 그 지식의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인 패러다임을 지니게 마련이다. 그러나 강단에 선 교사에게는 일반 지식인의 경우와는 다른 이데올로기와의 '특별한' 관계 설정이, 다시 말하여 그 자신의 '특수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인 입장도 검증하고 비판하는 知的 '염직성'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교사는 논의하는 주요 행동하는 자가 아닐 뿐더러 그는 학자로서 다름 아닌 '보편적인' 知를 지향하고 그리고 또한 교육자로서 그 '보편적인' 知에 학생을 훈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학문하고 교육하는 교사의 책임이요 양심이다.

대학의 교단은, 비록 그것이 논의와 비판의 장이라 하더라도 일상적인 질서나 윤리 도덕을 비웃고 뒤집으며 현실 세계의 악이 선으로, 선이 악으로 연출되고 共同幻想을 낳는 극장의 무대와는 다르다. 교사는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끝없는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 단순한 방관자도 단순한 배우가 되어서도 안 되며 그는 학문하는 자의 본질로 인하여 언제나 냉철한 비판자여야 한다. 진정한 비판이란 자기 자신의 패러다임의 검증이나 비판에서

부터 이루어지기 마련이며 이러한 비판자의 지위야말로 행동에의 유혹이 도처에 깔린 오늘날 이데올로기 시대의 교사의 실천 이성이요 지상 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그간 좌파 이데올로기는 이 땅에서 감추어진 체제의 허위성을 드러내고 우리들로 하여금 '사회'에 눈뜨게 하는 데 크게 기능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비합리적이며 당파적 情念으로 현실과 역사를 적지않이 왜곡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비합리적 편견은 모든 이데올로기에 불가피한 속성이라고 하지만, 혁명을 지향하는 좌파에게는 학문을 포함하여 지식은 '해방'을 위한 전략의 도구로 기능하고 간주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우리의 대학은 지금 바람직한 '제신들의 투기장' - 여러 이데올로기의 검증의 장 - 으로 얼마만큼 기능하고 있는가. '민족 - 민중 해방'이라는 제단에 자신을 바치고 행동에의 정념에 매몰된 한 주먹의 소수 학생의 존재. 이데올로기라는 면죄부를 목에

건 그들의 충격적인 영향력이 학생들 위에 위세를 떨친 지도 오래된다. 오랜 군사정권 지배 및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혐오는 그간 그 본질이 이상주의적이며 모랄리스트인 학생들을 반체제의 저항집단으로 만들었거니와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좌파 이데올로기가 아니었던가. 젊은 지적 세대는 유토피안이다. 유토피안인 그들은 존재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열망한다.

우리의 젊은 지적 세대를 좌파 이데올로기로 몰고간 데 크게 작용한 것은 우리를 둘러싼 이지러진 현실과 더불어 '지하 서적'에 친숙하여 현대의 고전이라고도 할 E.H.카의 한 역사학 서적까지도 이데올로기적으로 읽어온 그들의 '독특한' 독해의 행태이다. 1968년 전후의 프랑스 학생과 다름없이, 유신 체제 이후 우리의 학생들은, 비정치적이며 비이데올로기적인 많은 학생들을 포함하여 강의와 서적

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독해'하는 버릇이 생겨났다. 독자의 세계와 서적 '독해'의 행태는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적 소산이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의 '독해'의 방법론은 텍스트의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이데올로기적인 '독해'에는 이데올로기적 텍스트의 범람이 선행되었던 것이다.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가르치는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범당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명심하여야 할 조건이 있으니, 그것은 어떠한 이데올로기로부터도 해방된, 학문을 지향하는 학구자의 엄격한 자세이다. ■

이광주/고려대학교 사회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연구하였으며 충남대와 전주대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인제대 사회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지식인과 권력」, 「유럽 사회 풍속산책」 등이 있다.